

하늘나라에서 행복하여라

위령 성월이다. 11월쯤 되면 나무도 화사한 빛깔을 잃고 무성한 잎을 떨군다. 이제 겨울로 들어갈 채비를 한다. 나무는 여러해살이라 이듬해 봄에 따뜻한 기운을 받아 기지개를 켜듯 푸른 움을 틔운다지만, 한해살이풀은 지고나면 그뿐, 아무런 기약도 하지 못해 허망하기만 하다. 한 번 밖에 주어지지 않은 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도 황혼녘에 서면 “바람 앞의 지푸라기”(시편 83,14)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 푸른빛을 띠며 생기 있게 움직였던 나날은 머나먼 옛일로만 기억되고, 이제는 푸석푸석한 몸매 잿빛으로 수그러든다.

해마다 11월 1일은 모든 성인 대축일이라, 산상 설교 첫머리에 나오는 참된 행복 선언문을 봉독한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마태 5, 3). 이 말씀은 천지를 상실한 슬픔에 몸과 마음이 움츠러든 이들에게 다사로움을 불어넣어준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미 돌아가신 분들을 떠올리며 그분들에게 다시 마음으로 봉독해 드린다. 돌아가신 분들이 모두 성인이 되어 하느님 품에서 영원한 기쁨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비는 마음속의 지향을 바친다.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죠? 평생토록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 주느라 가난하게 사셨으니…’

‘행복하여라’로 선포되는 선언문에 나열되는 사람들의 유형은 참으로 다양하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의로움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자비로운 사람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여운을 남기며 기억되는 연령(煉靈)들은 모두 이 부류를 벗어나지 않으리라. 그들이 일생토록 살아오면서 닦아온 품성은 일시적이거나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는다. 날마다 당신의 삶으로 지속적으로 실천해 왔기에 ‘~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리게 되었을 테니까.

참된 행복 선언문에 따라 향을 사르듯이 온갖 축원을 바치며 말씀을 건넨다. 그토록 바라시던 하늘나라를 품에 안으시니 좋으시죠?(=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힘들게 사신 만큼 위로도 많이 받으셔요(=위로를 받으리라). 전망도 좋고 햇

별 잘 드는 남향집도 지으시고요(=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면 만족하시게 될 거예요(=흡족해지리라). 저희들을 사랑하고 이웃도 돌보셨으니 보답을 받으실 거예요(=자비를 입으리라). 늘 성체를 모시며 일치를 이루시려 했던 하느님도 뵙고요(=하느님을 보리라). 이제 무거운 책임일랑 다 내려놓으시고 하느님의 자녀로서 마음껏 뛰노세요(=하느님의 자녀라 불리리라).

이우식 베드로

참 행복이란?

‘행복선언’ 과연 어떤 것이 참행복이고,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에 도달하고 느끼는 삶일까?

오래전 어떤 피정자리에서 오늘 복음을 묵상하며 나누었던 일이 있다. 그때 이야기로는 행복주체를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말을 했었다. 행복주체는 3인칭이 아니라 1인칭단수, 즉 “나”가 되어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신 행복선언’이었다.

『신 행복선언』(2009년 10월 25일 발행)의 표지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나’, 하늘나라가 ‘나’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나’, ‘나’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나’, ‘나’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주리고 목마른 ‘나’, ‘나’는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나’, ‘나’는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나’, ‘나’는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나’, ‘나’는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나’, 하늘나라가 ‘나’의 것이다.

...

기뻐하고 즐거워 하여라, ‘네’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행복은 크든 작든 그 주체가 내가 될 때 의미가 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이 아무리 크다 해도 소박한 내 행복에 비하랴? 여기에 참 행복의 길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길로 가다보면 참 행복에 다다른다.

위령성월 첫 날인 오늘은 희망의 날이다. 위령성월, 이 달은 희망의 달이다. 그리스도를 따라 살았던 모든 성인에게서 희망을 보았고, 모든 위령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셨듯 희망을 담고 있다. 이제 우리 차례다. 우리 안에 그 희망을 담아 마음이 가난한 이로 살고, 슬퍼하는 이로, 온유한 이로, 자비로운 이로…。 그런 삶을 살아가자.

김현수 토마스 신부

위령 성월 기도

☞◎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 아멘.

- ☞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주님, 제 소리를 들어주소서.
- 제가 비는 소리를 귀여겨들으소서.
- ☞ 주님께서 죄악을 해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 오히려 용서하심이 주님께 있사와 더 더욱 당신을 섬기라 하시나이다.
- ☞ 제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오며 당신의 말씀을 기다리나이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제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나이다.
-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나이다.
- 주님께는 자비가 있사옵고 풍요로운 구속이 있음이오니
- ☞ 당신께서는 그 모든 죄악에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리이다.

- ☞ 기도합시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믿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느님,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어 주님을 섬기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 그들이 바라던 영원한 행복을 얻게 하소서.
-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 아멘.
- ☞ 주님,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 ◎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 ☞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 ◎ 아멘.

본당발전을 위한 기도

- 사랑이신 주님, 저희가 후보성인인 성 정하상 바오로의 모범을 본받아 열심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 주님께 받은 모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며, 주님의 보살핌 속에 하나되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 또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사랑의 계명을 가정과 이웃, 지역에서 실천하게 하소서.
- 말과 행동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앞장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 본당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주님의 기쁜소식을 널리 전하게 하소서.
- ◎ 주님께서 바라시는대로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소서.
-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2009년 10월 25일 봉헌금 내역			
주일헌금	：	\$ 800.00	
교 무 금	：	\$ 100.00	259(100)
감 사 금	：	\$ 70.00	192(50) 226(20)
성전건립	：	\$ 20.00	226(20)
(성모동산 누계 ：\$30 \$ 4935.00)			
합 계	：	\$ 990.00	

본 당 소 식

◎ 11월 구역모임 안내

- ▷캠브리지구역 : 21일 (토) 6시 김흥식형제택
- ▷워털루 1구역 : 7일 (토) 6시 소피아자매택
- ▷워털루 3구역 : 20일 (금) 6:30 박영진형제택
- ▷워털루 4구역 : 14일 (토) 6시 김현대 형제택

**** 교우주소록양식 정정/추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워털루 4구역 접수 완료)

◎ 바뇌 성모기도회 모임

- ▷11월 6일(금) 오후 7시
- ▷교육관

기도회에 참여하고 싶은 교우는 장명길 회장께 문의 바랍니다. (☎ 519 758 9526)

◎ 기도와 은총의 피정 안내

- ▷일시 : 11월 7일(토) 오후6시 ~ 10시
- ▷장소 : 토론토 한맘 성당
- ▷주관 : 파티마 세계 사도직

◎ 성당 건립 기금 마련 행사 안내

오늘 친교 식사중에 이동 전화 핸드프리 블루투스 헤드셋을 판매합니다. \$30 세금포함
문의 한택중 사목 총무

◎ 태양초 고춧가루 판매 안내

주문하신 고춧가루를 친교 식사 중에 나누어 드립니다.

◎ 본당 홈페이지 오픈

주소 : www.kwpaul.com

▷ 홈페이지에 대해 개선할 사항은 한택중 막시모 형제님께 말씀해 주십시오. ☎ 519 279 4005

◎ 11월 안내 담당은 청소년부입니다.

- ▷ 12월 : 사목회의

◎ 교육관/사제관 관리 일정

- ▶워털루 4구역 11월

◎ PARISH LIFE CENTRE 기금 마련 음악회 안내

일시 : 11월 13일 (금) 오후 7시 30분
티켓 : 성인 \$ 10, 어린이 \$ 5
문의 : 성가대 단장 문혜라 크리스티나

-겸손을 주소서-

주님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게 하소서
말로만 겸손을 외쳤지만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나도 모르게
나의 자랑이 나오고
나의 지식을 과시하고
나의 가문을 늘어놓고
나의 건강을 은근이 나타내려는
못된 마음 고쳐지게 하소서
내가 잘하여서 잘 된 것 처럼
내가 많이 배워서 활용하고
내가 운동을 많이 하여서 건강하고
내가 잘 생겨서 행복한줄 알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고
나의 모습만 높일까 두렵습니다
주님 익은곡식 고개 숙이는
가을철 자연의 순리에도 마음 열고
오늘 하루는 더욱더 낮아지는
축복의 진리를 배우게 하소서
가득찬 양동이는 소리가 없는것 처럼
세월이 흐르고 또 흐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는 없어지고 또 없는것 처럼
자신은 있는듯 없는듯
감출줄 아는 겸손을 오늘 담게 하소서
나 가진것 나의 것 아니요
나 지니고 있는 건강 내것이 아니며
나 앉은 자리 내 공로 없고
나의 지금의 행복도 나의 것은 아니기에
주인 되신 예수님께 몽땅 드리고
이제는 제자들의 발 씻으신 주님의 발아래
낮아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 좋은 글 중에서 -



KW한인천주교회 St. Paul Chung Parish

516 Franklin St. N., Kitchener
Ontario. Canada. N2A 1Z4
☎ 519 208 1913
FAX 519 954 1913
www.kwpaul.com

주임신부

사목회장 장명길 바오로 ☎ 519 758 9526

2009년도 사목지침

“말씀과 성체 안에서 본당 토대 다지기”

실천사항

1. 성서 쓰기, 읽기
2. 평일미사 참례하기
3. 주요기도문 다시 외우기

주일 미사
평일 미사

주일 오후 5시
수 오전 10시
금 오후 8시

유아 세례
병자 성사
혼인 성사
예비자교리
고해성사
축복식(차량,주택,가게)

1주일 전 신청
상시
10개월 전 신청
10개월, 통신교리는 1개월 보충
미사 전 20분
1주일 전 신청

2009-44호

2009. 11. 1.

모든 성인 대축일

해설 노재현

차주 해설 김손권

성 가

입 당 (294) 모든 성인 성녀시여
봉 헌 (221) 받아주소서
성 체 (166) 생명의 양식
퇴 장 (434) 산상교훈

화 답 송 ◎ 주님, 이들이 당신 얼굴을
찾는 세대이옵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
게 안식을 주리라. ◎ 알렐루야

영성체송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보리라. 행복하
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
느님의 자녀라 불리리라.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독 서

11월 1일 김근효 김순희
11월 8일 이동기 이정숙

봉 헌

11월 1일 한택중 한재희
11월 8일 박재영 박경미

복 사

11월 1일 구한형 이수민
11월 8일 류지흥 호 동

친 교

11월 1일 성모회와 키치너 구역 협조
11월 8일 성모회와 워털루 1구역 협조